

중국 항주 · 영파 출토 고려 청자 조사 현황

김현정

I. 머리말

II. 항주 · 영파의 지역적 특성과 고려와의 관계

III. 항주 · 영파 출토 고려 청자 조사 자편: 종류와 특징

IV. 맺음말: 문제의 제기와 향후 조사 방향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

주요논저: 「高麗時代 靑磁象嵌銘文瓦片을 통해 본 扶安窯」(2005), 「비안도 청자와 부안요」(2009), 「양구 칠전리 백자 가마터」(2013), 「Chiljen-ri White Porcelain Kiln No.1&2」(2013), 「청화로 쓴 시」(2015) 등.

중국 항주·영파 출토 고려 청자 조사 현황

金炫廷

I. 머리말

고려 청자는 중국의 청자 제작 기술의 영향에서 비롯되었다. 끊임없이 중국 청자의 새로운 변화를 흡수하여 고려 청자만의 독특한 경지를 구축하였다. 그러한 까닭에 고려 청자를 연구하는데 중국 청자가 고려 청자에 미친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문화의 교류는 상호적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반대되는 연구는 거의 드물었다. 점차 중국의 고고발굴에서 출토된 고려 청자가 보고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국내외 학계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중국 출토 고려 청자편은 중국으로 소비처가 확대되고 두 국가의 도자가 교류되는 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단서로서 중요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미술부는 2015년 4월, 10월 2차례에 걸쳐 “한국미술 기원조사-동아시아 도자문화 비교연구”의 일환으로, 절강성 일대 항주·영파 출토 고려 청자편 154점을 조사하였다. 이 지역을 우선 선정한 것은 절강성 항주와 영파가 고려와 관계 깊은 지역이었기 때문이다.

1차로는 항주 소재 절강성박물관 소장 청자편(1), 남송관요박물관 소장 청자편(2), 馬爭鳴 소장 청자편(66) 등을 조사하였다. 2차는 항주시문물고고연구소 소장 청자편(17), 영파 소재 중국 항구박물관 소장 고려청자(2), 馬亦超 소장 청자편(66) 등을 조사하였다.¹

우선 절강성 항주·영파의 지역적 특성과 고려와 관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하고, 2015년 조사한 항주·영파 출토 고려 청자편의 현황을 정리할 것이다. 그리고 조사에서 얻은 의문과 앞으로 조사 방향을 제시함으로 마무리하고자 한다. 이 글이 고려와 중국과의 도자 교류에서 상호 교류와 영향 관계를 파악하는 기초 자료가 되기를 바란다.

¹ 1차 조사(2015.4.20.~4.25.)는 강대규 미술부장·김현정 연구사·장성욱 연구사 등 도자팀이 “한국미술 기원조사-동아시아 도자문화 비교연구”를 목적으로 진행하였고, 2차 조사(2015.10.20.~10.24.)는 황지현 연구관(목칠공예)·김현정연구사(도자공예)·이용진 연구사(금속공예)가 “한국미술 기원조사-동아시아 공예문화 비교연구”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조사를 도와주신 浙江省博物館 沈瓊華 陶器部主任研究員, 浙江省文物研究所 沈嶽明 書記, 杭州市文物考古研究所 唐俊杰 所長, 浙江省文物鑒定審核辦公室 馬爭鳴 前研究員, 馬亦超 研究者,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申浚 博士, 浙江大學 孔愛里씨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린다.

II. 항주·영파의 지역적 특성과 고려와의 관계

杭州와 寧波는 절강성을 대표하는 도시들이다. 절강성은 중국 동부 長江의 삼각주 남쪽에 위치한다. 절강성의 항주, 영파, 가흥, 소흥 등을 포함하는 장강 하구의 삼각주는 예로부터 중국 경제의 중심지였으며, 문화의 요지였다. 이미 기원전 6천년 무렵 신석기 문화인 河姆渡문화가 존재하면서 흙으로 그릇을 빚어 사용하였다. 이후로 여러 문화가 부침하였지만, 唐代부터 越州窯·龍泉窯·南宋官窯 등 중국 도자사에서 중요 가마들이 운영되었다.

절강성의 성도인 항주는 절강성 북부 錢唐江 하구에 자리한다. 수대 대운하가 연결된 이후, 바다와 내륙중심지를 잇는 문물 집산지로서 번창하게 되었다. 본격적으로 발전하게 된 것은 臨安(항주의 옛 이름)이 남송(1127~1279)의 수도가 된 이후부터였다. 1126년 금이 침입하여 북송(960~1126)의 수도인 개봉이 점령되자, 송은 남쪽으로 이동하여 남송을 수립하였다. 남송의 수도 임안은 몽골이 침입하는 1275년까지 남송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였다.

항주는 많은 도자기의 집산지이자 소비지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요컨대 항주는 대운하의 종착지이자 시작지이며, 바다로 나가는 영파항과 근접해 있었기 때문이다. 항주는 북송대 시박사를 설치하여 남송대까지 주요 무역항으로 역할하기도 하였다.² 항주는 남송의 수도가 된 이후에는 월주요·용천요·남송관요 등 절강성에서 운영되는 가마뿐만이 아니라, 경덕진요·덕화요·건요·길주요 등 중국 전역에서 운영되는 가마들의 집산지이자 소비지였을 것이다. 고고학 자료를 살펴보면, 남송 수도의 성곽인 臨安城遺址에서는 월요청자·용천청자·경덕진백자·정요백자·길주요 흑유자 등이 남송이후 원명청시기까지 출토되고 있다.³

영파는 절강성의 동남연안에 위치한 항구도시였다. 국내 생산물 운송과 해외무역의 중심항구였으며, 바다를 통하여 중국으로 들어오는 관문이었다. 영파는 唐代부터 신라, 일본, 동남아 배가 이곳을 왕래하였다.⁴ 영파에 북송대 시박사가 설치되어 몇 번 개폐를 거듭한 후 1322년 다시 설치되어 존속되었다. 그래서 영파는 원대에 천주, 광주와 함께 가장 중요한 무역항이 되었다. 송과 원은 차, 비단, 도자기 등을 수출하였다. 고려에서는 복령, 인삼, 홍화의 한약재와 청자 등을 수입하였다.⁵

² 市舶司는 해상 무역항에 설치되는 화물 검사, 무역세의 징수, 불법 행위 단속 등의 직무를 맡아 보는 관청이다. 시박사는 원대에는 市舶提舉司라고 불렸다. 몽골은 1271년 국호를 원으로 정하고, 원이 1277년(세조 18년) 중국 대륙의 대부분을 석권하자 송의 제도를 본받아 경원(영파), 상해, 감포, 광주 등 네 항구에 시박제거사를 설치하였다.

³ 杭州市文物考古所, 『南宋臨安府治與府學遺址』(北京: 文物出版社, 2013), pp. 260-316.

⁴ 경원(영파)의 시박사는 1277년 설치, 1301년 폐지, 1308년 재설치, 1311년 폐지, 1314년 재설치, 1320년 폐지, 1322년 재설치되었다. 김원동, 「신안인양유물을 중심으로 한 원대해외무역에 관한 소고」, 『대구사학』 34(1988), pp. 63-64.

⁵ 남송 寶慶(1225~1227) 연간에 쓰인 『寶慶四明續志』와 원대 至正(1341~1367) 연간에 쓰인 『至正四明續志』를 비교해 보면, 남송대와 원대의 수입품목은 160종에서 220종으로 증가하였다고 한다. 김원동, 앞의 글(1988), pp. 70-73.

962년 고려 광종이 처음으로 사절단을 파견하여 북송과 공식외교를 맺을 때에도, 사절단은 明州(영파의 옛 이름)를 거쳐 북송을 방문하였다.⁶ 영파에서는 휘종의 뜻을 받들어 1117년 명주 刺史 樓異가 고려 관련 정무를 관장하는 高麗司를 설립하고, 고려사신을 맞는 高麗使館을 건립하였다.⁷ 고려사관은 고려사신단이 숙박과 사무업무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거처였으며, 이곳에는 화물저장소와 거래소 등도 있었다. 고려사신단에는 고려사신만이 아니라 상인, 유학생, 승려 등도 포함되어 있었다.⁸ 또한 영파는 1123년 서궁을 포함한 북송황제 徽宗의 國信使 일행이 고려를 향해 출발하였던 곳이기도 하다.⁹ 1323년 해상무역선 新安船이 출발한 곳도 바로 이곳 영파였다.

한편 남송과 고려의 공식적인 관계는 고려 의종 18년(1164년)을 기점으로 단절되었다. 이 해에 고려의 사신단이 명주(영파)를 거쳐 임안(항주)을 방문한 것이 문헌상 마지막 기록이었다.

요컨대 고려시대 항주와 영파는 남송과 원의 정치, 경제, 문화교류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었다. 다양한 요지에서 생산된 도자기의 집산지와 소비지이며, 중국과 고려의 문물이 교류되는 항구와 교역지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었다. 고려 청자가 영파 항구에서 교역되고, 항주에서 운하를 통해 중국 대륙으로 들어갔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황으로 보면 항주와 영파에서 고려 청자 편이 다량 출토된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Ⅲ. 항주 · 영파 출토 고려 청자 조사 자편: 종류와 특징

근래에 들어 한중학계에서 고려 청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꾸준히 그 전모가 밝혀지고 있다.¹⁰ 그 결과 고려 청자는 북송과 요의 영역을 제외하고는 중국 전역에서 발견되었다고 한

6 “唐開元二十六年(公元738年), 設明州, 轄慈溪、奉化、鎮海、定海、象山等5縣, 州治鄞縣, 屬浙江東道. 南宋慶元元年(公元1195年), 升爲慶元府, 屬於兩浙東路. 元朝至開元十三年(公元1276年), 稱慶元路. 元朝大德七年(公元1303年), 設浙東道都元帥府, 屬於江浙行省. 明朱元璋吳元年(公元1367年), 中國沿海地區海禁, 唯獨明州對外開放. 明洪武十四年(公元1381年), 爲避國號諱, 朱元璋采納鄞縣讀書人單仲友的建議, 取“海定則波寧”之義, 將明州府改稱寧波府. 寧波之名沿用至今. 清順治十五年(1658年)設寧紹台道, 駐寧波. 民國1927年劃鄞縣城區設寧波市, 屬於浙江省.” 寧波市, 『寧波市簡介』(中國網, 2004).

7 이와 관련하여 송 휘종이 쓴 ‘省降御筆’의 번각본 비문이 남아 있다. 이것은 루이의 고려사 설립을 포함한 치적을 칭찬하여 상을 준 내용이다.

8 현재 영파시는 고려사관유지를 1981년 11월 15일 보호유적으로 지정하고, 부분 보존하여 일반에게 개방하였다.

9 이때 수행원 서궁은 고려를 방문한 내용을 써서 『宣和奉使高麗圖經』(이하 『高麗圖經』)라는 책으로 남겼다. 당시 서궁이 왔던 해로는 『고려도경』 권34-39 海道에 따르면, 명주(영파)-가거도-홍도-대흑산도-고군산도-태안마도-강화도-예성강-급수문-벽란도-개경에 이르는 길이다. 이를 동중국해 사단항로라고 하며 주로 남송시기에 이용하였다.

10 중국에서 처음 고려 청자가 출토된 것은 1930년대부터였다. 출토 고려 청자를 단편적으로 소개하거나 유적별, 지역별로 정리하였다. 그래서 중국 출토 고려 청자의 시간적 변화와 지역적 차이를 규명하거나 나아가 기술, 장식기법 등의 영향 관계를 설명하기도 하였다. 최근 중국 학자들의 고려 청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최진, 『중국 원대

다.¹¹ 12세기 비색청자와 고려 후기 상감청자가 주를 이루며,¹² 북방에는 12세기 비색청자가 적고 고려 후기 상감청자가 많은 반면, 남방에는 12세기 질 좋은 비색청자가 상당히 많고, 고려 후기 상감청자는 북방보다 적다고 한다. 또 남방에서 원시기의 고려 청자는 남송시기보다 그 수량이 적다고 하였다.¹³ 집중 출토된 항주 출토 고려 청자에 관한 논문은 한 편 있다. 항주에서 고려 비색청자는 황성 주변에서, 상감청자는 시내 곳곳에서 출토되었다고 한다.¹⁴

그러나 학계에 정식 보고된 발굴은 적은 편이고 그 수량이 한국 출토 중국도자기 수량에 비하여 적다고 한다.¹⁵ 출토 수량이 많거나 적다는 것은 상대적일 뿐, 출토 수량이 계량화된 경우는 없었다. 따라서 중국 출토 고려청자의 규모나 종류 등을 파악을 위해 기초 조사 물론 출토 수량의 계량화도 지속적으로 필요하다.¹⁶

결국 송·원과 고려의 교류와 무역에서 매우 중요한 지역이며 고려 청자 출토가 집중되었던 항주와 영광을 우선 조사대상으로 삼았다. 2015년 조사대상품은 절강성박물관, 남송관요박물관, 항주시문물고고연구소(이하 항주시문물고고소), 중국항구박물관 등의 기관 소장품과 개인 소장품들이었다. 조사한 항주 출토 고려 청자편은 모두 154점이다. 그 가운데 149점이 전래품이 아닌 출토지가 분명한 발굴품이거나 발견품이었다.

이러한 자편은 기종, 기형, 태토, 유약과 유색, 번조받침, 시문기법, 문양 등 여러 속성을 알려 준다. 자편 가운데는 태토의 질, 유약과 유색 외에 다른 속성을 관찰하기 어려운 것도 있다. 즉

묘 출토 청자상감보란운학문대병, 『고미술』 43(1997); 김재열, 「중국으로 건너간 고려자기」, 『湖巖美術館研究論文集』 4(1999); 장남원, 「중국 元代유적 출토 고려청자의 제작시기 검토-內蒙古 集寧路 窖藏 출토 龜龍形靑瓷硯滴을 중심으로」, 『湖西史學』 48(2007); 방병선, 「고려청자의 중국 전래와 도자사적 영향」, 『강좌미술사』 40(2013); 耿寶昌, 「閑話朝鮮高麗靑瓷」, 『博物館研究』 3(1985); 馮先銘, 「中國出土朝鮮伊朗古代陶器」, 『中國古陶瓷論文集』(北京: 紫禁城出版社, 1987); 陸明華, 「略談上海博物館所藏高麗靑瓷」, 『文物』 6(1988); 丁麗, 「遼陽出土的高麗靑瓷」, 『遼海文物學刊』 2(1994); 林士民, 「北洋航路拓展與朝鮮半島制瓷文化交流」, 『浙東文化論叢』(杭州: 中央編譯出版社, 1995); 金立言, 「略論高麗靑瓷」, 『收藏家』 4(1996); 馬爭鳴, 「高麗靑瓷與浙江靑瓷淵源析」, 『中國文物報』 4(2000); 馬爭鳴, 「高麗靑瓷與浙江靑瓷比較研究」, 『東方博物』 2(2006); 馬爭鳴, 「杭州出土的高麗靑瓷」, 『東方博物』 4(2008); 馬爭鳴, 「中國出土的高麗靑瓷」, 『東方博物』 4(2009); 李仲謨, 「汝窯與高麗靑瓷-兼論高麗靑瓷的傳世器物推斷汝窯瓷器的部分造型」, 『文化遺產研究集刊』 2(2001); 劉毅, 「中國發見的高麗靑瓷研究」, 『中原文物』 3(2001); 劉毅, 「幾件中國出土高麗靑瓷的年代分析」, 『收藏家』 6(2010); 彭善國, 「宋元時期中國與朝鮮半島的瓷器交流」, 『中原文物』 2(2001); 彭善國, 「中國出土的高麗靑瓷」, 『李秉昌博士記念 韓國陶磁研究報告-東アジア海域と高麗靑磁 I』 8(2015); 遠曉春, 「蓬萊發見高麗鑲嵌靑瓷分析」, 『當代韓國』 (2006); 陳傑, 「宋元時期東北亞海上交流的考古學觀察」, 『北方文物』 1(2008); 小林仁, 「中國出土高麗靑瓷考」, 『中國古陶瓷研究』 14(2008).

11 彭善國, 앞의 글(2015), p. 67.

12 방병선, 앞의 글(2013), p. 15.

13 彭善國, 앞의 글(2015), p. 68.

14 馬爭鳴, 앞의 글(2008).

15 방병선, 앞의 글(2013); 彭善國, 앞의 글(2015).

16 중국에서 2000년 이전에는 유적발굴시 중국 자편이 아닌 것은 일반인이 가져가도록 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고려 청자편은 박물관이나 고고연구소 등이 소장하기보다는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경우가 매우 많다. 그런 이유로 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중국의 고고 및 연구기관의 협조를 통해 개인소장자의 고려 청자 소장품을 조사하는데 주로 이들은 소장가이자 연구자이다.

149점에는 여러 속성을 알 수 있는 자편부터, 고려 청자인 것만을 알 수 있는 작은 자편들까지 포함되었다. 후자는 수량적인 대세 파악에는 도움을 주지만, 다른 속성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출토 고려 청자의 성격과 특징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데에는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 따라서 꽤 많은 수량의 고려 청자를 정리하였지만, 속성을 파악하여 성격과 특징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 자편은 한정되어 있다. 가량 다양한 속성 가운데 149점에서 기형이 파악되어 기종을 알 수 있는 것은 전체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63점이었다.

이러한 연유로 말미암아, 이 글이 중국 출토 고려청자 전체를 대표하거나, 항주나 영파 출토 고려청자의 성격과 특징을 모두 보여준다고 하기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즉 항주와 영파 지역을 조사하여 살펴 본 중국 출토 고려 청자의 성격과 특징에 대한 하나의 사례이자 일단면이라는 점이다. 또 다른 하나는 조사한 영파 출토 고려 청자는 2점이었으나, 고려와 관계의 중요성과 고려-영파-항주로 이동 경로의 관련성, 다양한 질을 가진 청자의 사례에 대해 소개하기 위하여 포함시킨 점이다. 따라서 영파 출토 고려 청자의 성격과 특성을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자편을 정리한 결과 통계현황은 기존의 연구결과의 추이와 다르지 않았다. 즉 12세기 비색청자와 고려 후기 상감청자가 주를 이루며, 남방에서 원시기의 고려 청자는 남송시기보다 수량이 적다는 것이다. 원시기의 고려 청자를 상감청자로, 남송시기의 것을 12세기 비색청자로 본다면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각기 그룹의 비율은 통계가 축적되면 좀더 정확해질 것이다. 조사한 고려 청자 통계적 현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고려 청자편을 양질청자와 조질청자로 구분하였다. 여기에서 조질청자란 질이 매우 좋은 양질청자의 대비되는 용어로, 아주 질 좋은 청자 외에는 모두 조질청자에 포함시켰다. 조사한 고려 청자 편 가운데 양질청자는 89.9%(134점)에 이르고, 조질청자는 10%(15점)에 불과하다. 양질청자 중 상감되지 않은 비색청자는 66.4%(99점)이고, 양질-상감청자는 23.4(35점)%이다. 조질청자는 상감 아닌 것이 8%(12점), 조질-상감청자는 2%(3점)이다. 고급품이 많았고, 전체에서 규석받침이 남아있는 것이 13점이다.

66.4%(134점)에 달하는 비색청자들이 출토된 곳은 남송 臨安城遺址이다.¹⁷ 남송 수도의 성곽인 임안성의 지형은 鳳凰山을 포함하고 있으며, 전당강을 넘어 외성의 서쪽은 西湖에 잇닿아 있었다.¹⁸ 임안성유지 내에는 봉황산 동쪽에 황성이 위치하고, 남송의 황제가 행차하던 南宋禦街를 따라 3성6부, 南宋恭聖仁烈皇后邸宅 등의 遺址가 남아 있다.

최상품 비색 청자들은 특히 皇城遺址와 南宋恭聖仁烈皇后邸宅遺址에서 출토되었다 도 1. 황성유지 출토 고려 청자편은 현재 항주 卷烟廠 자리에서 대량의 관요 청자편과 함께 일정 수량이

¹⁷ 杭州市文物考古所, 『南宋恭聖仁烈皇后宅遺址』(北京: 文物出版社, 2008); 『南宋臨安府治與府學遺址』(北京: 文物出版社, 2013); 『南宋禦街遺址』, 上·下(北京: 文物出版社, 2013), pp. 1-15. 前言을 참조할 것.

¹⁸ 윤장섭, 『도성과 궁전』, 『중국의 건축』(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9).



도 1.
임안성지 고고조사와 발굴지점 분포도,
『南宋 臨安府治與府學遺址』
(北京:文物出版社, 2013)

집중적으로 출토되었다.¹⁹ 한편, 상감되지 않은 조질청자(18%)는 황성 주변의 城頭巷·봉황산을 포함 임안성 유지, 그리고 영파 등지에서 출토되었다. 질종은 비색청자와 상감되지 않은 조질청

¹⁹ 1960년대 황성북면에서 발견된 고려 청자는 복송 관요 청자로 오인되었다. 황성의 주변지구(망강문, 태모향, 성두향, 주보향, 고사방향 등지)에서 모두 소량의 고려 청자편이 출토되었다. 향주 권연창은 남송의 “3성6부” 자리였으며, 황성북면정문 동측에 “동화문” 외국사신이 근견하던 문이라고 한다. 그래서 향주 권연창의 출토지점과 황실의 東庫는 서로 멀지 않은 거리이며 출토 자편은 “동고”의 황실의 생활물품일 것으로 보았다. 馬爭鳴, 앞의 글(2008), pp. 109-111.

자는 주로 12세기 고려 청자편들이다.

23.4%(35점)의 양질-상감청자는 남송 관요, 공성인렬황후저택유지, 봉황산, 扇子巷 등 임안 성유지에서 서호 주변까지 출토되었다. 조질-상감청자는 2%(3점)는 출토지가 서호 주변과 봉황산이다. 비색청자편이 임안성유지에 집중된 반면 상감청자편은 임안성 외성 서쪽에 있는 서호 주변까지 확대되었다. 즉 현재 항주시 영역의 여러 곳에서 출토되고 있다.²⁰ 시기적으로는 12세기부터 14세기에 해당한다.²¹

기형을 알 수 있었던 것은 모두 63점이었다. 매병(25)이 가장 많았고, 발(8), 접시(5), 주자(4), 뚜껑(3), 완(3), 잔(3), 합(2), 향로(3), 화분(2), 대접(1), 도침(1), 타호(1), 기타(1) 순이다. 출토 수량비율대로 중국에서 사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매병을 제외하고, 발과 접시의 비율이 높으며, 완과 잔의 비율이 같다. 발과 접시의 비율이 높은 것은 현재까지 알려진 생산 유적지에 발과 접시의 비율이 높은 것과 같다. 향로는 鼎形香爐片, 상형청자 향로 뚜껑편이 출토되었다. 일상생활 용품인 도침, 화분 등도 출토되었다.

문양이 파악되는 것은 모두 116점이었다. 주문양은 용문(14), 연판문(12), 모란문(11), 水波纹(10), 국화문(9), 운학문(9), 초화문(9), 연화문(6), 앵무문(4), 동자문(2), 포류문(2)이 많이 출토되며, 종속문양은 당초문(15), 뇌문(8), 여의두문(5)이 많이 사용된 편이 나타났다. 많이 나타나는 문양은 용문양이며, 그 다음 연판문이 많다. 연판문에 연화문까지 포함하면 연꽃을 소재로 한 것이 가장 많아진다.

기법은 시문한 것은 136점이다. 가장 많이 장식기법은 음각(61), 상감(38), 양각(30), 압출양간(4), 퇴화(3) 순이다. 두 가지 이상 장식기법을 사용한 예는 22점이며, 음각·양각이 같이 사용된 것이 18점이다.

한편, 가장 주목되는 것은 역시 청자음각용문매병이다. 매병은 水波龍文매병과 용문 매병, 능화창 안의 용문이 시문된 매병으로 크게 구분된다. 항주시문물고고소 용문매병 자편은 1997년 권연창 관련 하수유적 발견시 항주시문물고고소가 발굴한 편이다.²² 목 아래와 하단부에 구름을 장식하고 몸체에는 굽이치는 물결 위를 나는 용을 표현한 수파용문매병으로 추정된다. 하나는 구름문이 시문된 목에서 몸체로 연결된 부분이고, 다른 하나는 용의 3조가 표현된 어깨부분이다. 도 2~4. 나머지 한 편은 물결무늬와 용의 같기 일부만 남은 몸체 부분으로, 다른 세 편과 달리 물결의 너비가 좁고 선도 가늘며 유색이 약간 불투명한 자편이다. 앞의 세 편과 다른 개체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 청자음각수파용문매병편들은 아마도 최소 2개체 이상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도 5.

20 馬爭鳴, 앞의 글(2008), p. 111. 현재 항주시의 영역은 임안성 서쪽의 서호에서 그것을 넘어 더 확장되어 있다.

21 馬爭鳴, 앞의 글(2008), p. 1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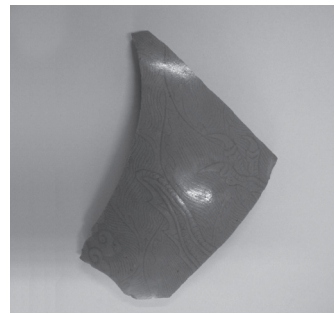
22 주 20) 참조할 것; 항주시문물고고소는 1988년 卷煙廠터 건공지에서 南宋御街를 발견하였다. 권연창은 대형 건물터, 하수구 시설, 맨홀 및 3성6부와 관련한 중요한 유적임이 밝혀졌다. 杭州市文物考古所, 앞의 책(2013), pp. 8-9; 방병선, 앞의 글(2013), p.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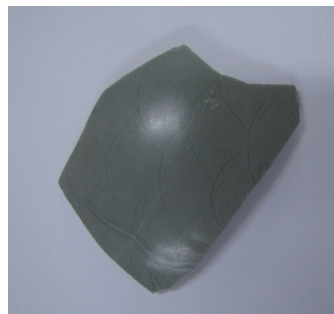
도 2. <청자용문매병편>, 고려(12세기),
항주 임안성유지 출토, 항주시문물고고소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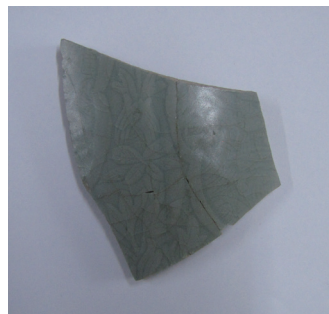
도 3. <청자용문매병편>, 고려(12세기),
항주 임안성유지 출토, 항주시문물고고소
소장



도 4. <청자용문매병편>, 고려(12세기),
항주 임안성유지 출토, 항주시문물고고소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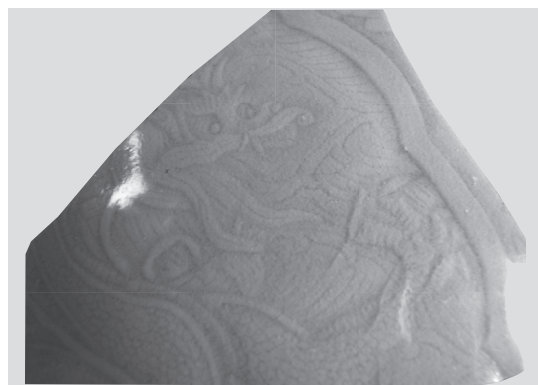
도 5. <청자용문매병편>, 고려(12세기),
항주 임안성유지 출토, 항주시문물고고소
소장



도 6. <청자용문화문과형매병편>, 고려(12세기),
임안성유지 출토, 항주시문물고고소 소장



도 7. <청자용문편>, 고려(12세기),
황성유지 권연창 출토, 馬爭鳴 소장



도 8. <청자용문매병편>, 고려(12세기), 항주 봉황산 출토, 馬亦超 소장

한편 능화창 안에 용문을 시문하고 능화창 밖을 화문으로 장식한 과형 매병도 발견되었다도 6.

마쟁명 소장 청자용문매병도 권연창에서 출토된 것이다. 이 자편은 휘도는 용의 몸체 일부만 남아 있는 편과도 7, 능화창 안에 용문이 장식된 매병편이다. 그리고 마역초 소장 고려 청자편은 60년대~80년대 봉황산에서 발견되었는데, 능화창 안에 4조룡이 섬세하게 음각되었다도 8.²³ 다른 용문매병편은 하단부에는 연판문이, 그 위

²³ 봉황산은 남송 황성유지의 동쪽에 자리한 산으로 북쪽 산자락에 노호동 요지가 위치한다. 마역초는 이 노호동 요지를 남송 수내사관요지로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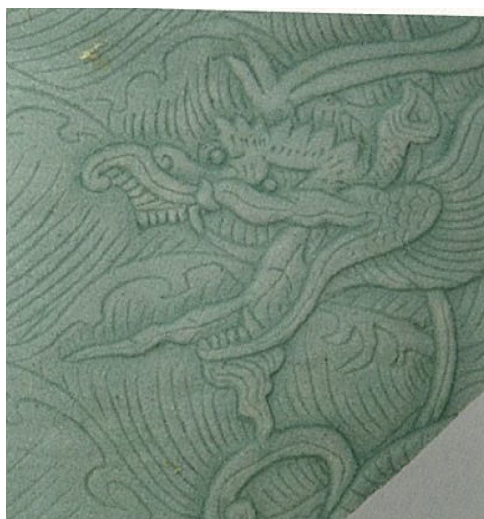
도 9. <청자용문매병편>, 고려(12세기), 항주 봉황산 동북쪽 출토, 馬亦超 소장



도 10. <청자용문매병편>, 고려(12세기), 항주 봉황산 동북쪽 출토, 馬亦超 소장



도 11. <청자용문매병편>, 1고려(12세기), 강진 사당리 출토,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도 11-1. 도 11의 부분

의 몸체에는 물결이나 구름 등에 배경없이 3조룡의 발이 표현되었다 도 9~10. 조사한 항주 출토 청자용문매병은 모두 유색이 뛰어난 최상급 청자로 강진 사당리에서 발굴된 자편과 동일하다 도 11. 항주시문물고고소 소장 청자용문매병의 물결과 구름의 섬세한 문양 표현과 유색 태토 등은 강진 사당리 발굴 청자음각용문매병과 동일하다. 마찬가지로 마역초 소장 능화창 안의 용문양은 반대방향을 취하고 있지만 거울을 보고 있는 것처럼 강진 사당리 용문양과 똑같은 얼굴

을 가졌다. 마찬가지로 유색, 태토 등도 사당리 것과 같다.

매병편은 수량이 많고, 최상품 비색청자에 주로 용문이 장식되었고 큰 매병이라는 점이 흥미롭다. 용문은 일반인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문양이 아니다. 높은 신분층만이 사용할 수 있는 문양이다. 또한 항주 외에 현재까지 용문이나 용형이 보고된 것은 두 사례이다. 安徽滁縣墓葬 출토 청자상감용문호²⁴와 內蒙古集寧路古城遺址 출토 청자귀룡형연적²⁵이다. 그런 만큼 항주에서 용문 매병편이 다량 발견된 것은 매우 주목된다.

매병이 술·기름·꿀 등의 액체를 담는 병이라는 점, 그리고 강진에서 개경으로 가던 태안 마도선 출토 매병에 내용물이 담겨져 있었던 점을 떠올려 보면, 고려에서 남송으로 간 매병이 자기 그 자체였을지 내용물이 담긴 매병이었을지 궁금하다.

그러한 이유는 13세기 전반에 고려와 송의 무역관계를 알려 주는 『寶慶四明志』 ‘市舶’條²⁶에는 수입물품들을 細色(상등품)과 麤色(하등품)으로 구분하고 「靑器」를 「추색」으로 수록하였기 때문이다. 즉 고려 청자는 하등품으로 기록되어 있다.²⁷ 청자용문매병이 왜 추색으로 구분되었을까? 이 청자매병은 수입품이 아닌 진상품이거나 청자 자체가 아닌 청자 안에 담은 내용물로 분류된 것은 아니었을까?

세색과 추색의 기준이 물자의 종류이고, 물건마다 품질별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에 따르게 되면 고려 청자의 품질이 기준이 되지 못한다. 곧 최상품이든 최하품이든 청자는 추색이 된다. 당시 남송대의 수입품목은 160종이며 원대의 수입품목은 220종이었다고 한다.²⁸ 『寶慶四明志』에 일부 수입품목만 기록되었을 수도 있고, 「청기」라는 것이 고려 청자에서 어떤 특정한 것을 지칭하는 것일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최상급 청자용문매병을 이 기록과 함께 염두에 두고 볼 때 품질로 기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좀더 이에 대한 다른 해명이 필요하다.

둘째, 비색청자의 문양과 기형은 다양하다. 내저원각이 있는 무문발, 화형접시, 모란절지문접시, 앵무문접시와 발, 연판문발, 수파문완, 국당초문잔, 뇌문대의 향로, 정형향로, 모란문투쟁, 연화문매병, 화문매병 등이다. 대체로 12세기의 것으로, 강진 사당리 등에서 발굴된 자편과 유색과 질이 동일하다. 매우 최상급이다. 그러나 영파 출토 고려 청자완 하나는 그릇 외면에 연판문이 거칠게 음각된 것이고, 다른 무문완은 유색과 유질이 괜찮은 것이어서 다양한 질의 청자가 수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상감청자도 문양과 기형이 다양하다 도 12. 국화문합, 인물문주자, 운학문고족배, 운학문화분, 시명문주자, 포류문접시 등이 있다. 대체로 원대에 수입되었으리라고 보이는 늦은 시기의 청자편들이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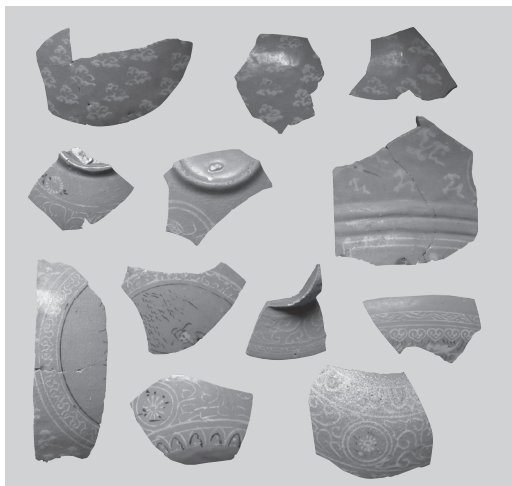
24 張柏主編, 『中國出土瓷器全集—安徽』(北京: 社會科學出版社, 2008) 181항.

25 內蒙古文物考古研究所陳永志主編, 『內蒙古集寧路古城遺址』(北京: 文物出版社, 2004) 89항; 장양원, 앞의 글(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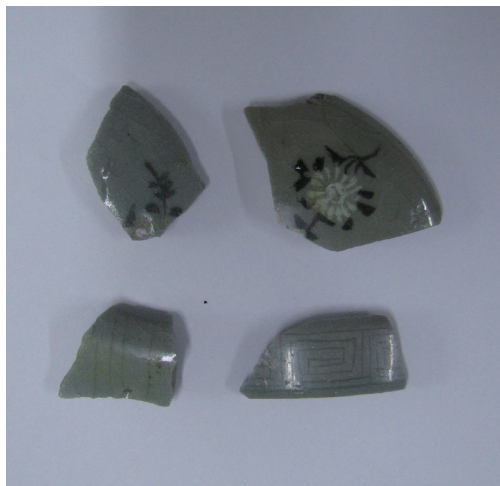
26 송의 羅濬의 저서로, 보경은 남송 理宗의 연호로 1225-1227년에 해당한다.

27 김재열, 앞의 글(1999), pp. 18 재인용.

28 주 5) 참조.



도 12. 각종 <청자상감편>, 고려(13~14세기), 서호 주변 출토, 馬爭鳴 소장



도 13. <청자상감국화문합편>(상단), 청자향로 뚜껑편 (우하단)
고려(12~13세기), 항주 공성인렬황후저택유지 출토,
항주시문물고고소 소장

셋째, 남송 공성인렬황후저택유지에서 고려 청자편이 일괄 출토되었다.²⁹ 공성인렬황후(1200~1224) 양씨는 송 영종의 두 번째 황후이다. 높은 신분을 지니고 생물이 분명한 사람이 거주했던 저택에서 출토된 최상급 자편이므로 편년자료로 매우 중요하다.³⁰ 항주시문물고고소는 남송 공성인렬황후저택유지 출토 음각뇌문대편을 不名器形으로, 청자상감국화문편을 병으로 보고하였다. 그러나 전자는 뇌문이 음각된 상형청자향로 뚜껑의 구연부이며, 후자는 내외면 모두가 시유된 점과 약간 등글게 곡선을 이룬 면 등으로 보아 합의 편으로 판단된다 도 13. 마역초 소장품에도 이와 같은 상형청자향로 뚜껑의 구연부편이 있다.

이러한 향로 뚜껑편의 출토는 북송의 曹勣의 문집 『松隱集』의 고려 향로에 대한 글을 확인하게 해 주는 예이다. 그 글은 조육이 고려 향로 1개를 虎丘紹老에게 보내며, 설명하는 의미에서 偈를 쓴 것이다. 서궁이 말한 사자향로와 같은 것이 송대 사람들 사이에 선물이 될 정도로 귀하게 여겨진 것 같다.³¹ 이처럼 서궁, 조육, 공성인렬황후 등과 같은 송의 높은 신분층은 고려 청자향로를 선호했던 것 같다.

2015년 조사한 항주 출토 고려 청자의 기종 및 문양, 출토 위치 등의 내용을 통해 소비층에 대해 파악해 보면 다음과 같다. 최상품 비색청자는 남송 황실과 높은 신분층에서 주로 사용되었던

29 보고서에는 공성인렬황후저택유지 고려청자는 14점이 모두 연못에서 출토되었다고 보고되었다. 소개한 9점 가운데 3점이 상감이고 나머지는 6점은 상감청자가 아니다. 반, 호, 병, 관 등이 출토된 것으로 소개되었다. 杭州市文物考古所, 앞의 책(2008), p. 35, p. 96.

30 공성인렬황후저택유지 보고서에서는 청자가 출토된 연못과 4층 퇴적을 남송말 원초에 형성된 것으로 보았다. 杭州市文物考古所, 앞의 책(2008), p. 91.

31 김재열, 앞의 글(1999), pp. 18~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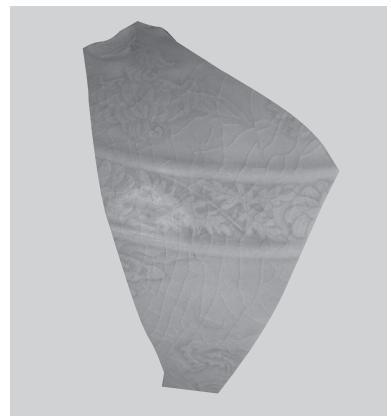
것이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비색청자편이 임안성 내 황성 유지와 그 주변에서 집중 출토된 점과 그 출토품이 용문이 시문된 매병 등 최상급의 청자란 점이 소비층을 가늠하게 해 주기 때문이다.

반면에 상감청자의 경우, 황실과 높은 신분층을 포함하여 ‘다른 신분층’으로 소비가 확대되거나 변화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언급했듯이 상감청자편의 출토가 임안성 내 황성뿐만 아니라 서호 주변과 항주시 여러 곳으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상감청자 출토지의 확대 이유는 분명하지 않지만, 남송(1127~1279)시기부터 원대(1271~1368)까지 걸치는 시기이므로 몇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남송시기 상감청자편 출토지의 확대는 황성 중심에서 임안성 외곽까지 소비처가 넓어진 것으로, 황실과 높은 신분층을 포함하여 ‘다른 신분층’까지 소비층이 확대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다른 가능성은 남송에서 원 교체 이후, 항주지역 지배층의 교체에 따른 변화와 이들의 주거지 변화나 이동을 의미할 수도 있다. 전자의 경우 ‘다른 신분층’이란 황실이나 높은 신분층보다 낮은 신분층이라는 뜻이고, 후자의 경우는 이민족 즉 남송인이 아닌 몽고인의 의미로 볼 수 있겠다.

요컨대 남송시기 많은 수량의 최상품 비색청자를 항주에서 황실과 높은 신분층이 소비하였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남송·원 교체 이후 시기에는 남송시기 소비된 비색청자보다 적은 수량의 상감청자에 대한 소비가 ‘다른 신분층’까지 확대되었다고 여겨진다. 앞서 언급한 통계현황에 따르면 이번 항주·영파 출토 조사된 비색청자와 상감청자의 비율은 대략 3:1 정도였다. 이러한 양상은 고려와 남송·원과의 교역관계가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추후 상세한 소비층의 변화와 교역관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V. 맺음말: 문제의 제기와 향후 조사 방향

그런데 조사시 몇 가지 의문이 들었다. 조사를 위해 제공받은 청자편에는 고려 청자와 매우 유사하지만, 이제까지 보아온 고려 청자와 다른 것으로 판단되는 자편들이 섞여 있었다. 龍鳳文梅瓶片 1점은 고려 청자 유색과 비슷하지만 문양은 생소하였다. 목 아래 부분에 봉황문을 시문하고 어깨에는 국화형쿨무늬의 문양대를 돌리고 몸체에는 용문양을 장식하였다 도 14. 그렇다고 일반적으로 알려진 용천요나 송대 관요의 청자는 아니다. 유색의 연두빛이 다소 강하고 태토가 다른 것에 비해 희며, 문양이 생소한 것으로 보아 고려 청자도 아니다.



도 14. 〈청자용봉문편〉, 중국 남송(12세기),
항주 봉황산 출토, 馬亦超 소장



도 15-16. 〈청자매병편〉, 중국 남송(12세기), 항주 봉황산 출토, 馬亦超 소장



도 17-18. 〈청자용문매병편〉, 고려(12세기), 강진 사당리 출토,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항주 봉황산 출토 다른 매병편 도 15~16은 몸체 하단의 구름문과 유색은 강진 사당리 매병도 17~18과 같다. 그런데 굽이 지나치게 깔끔하면서 사선으로 한번 더 깎아냈고, 유약이 닳여진 접지면의 색이 매우 붉다. 이러한 점은 굽의 접지면이 편평하고 받침의 노태된 부분이 담주황색인 사당리 매병과는 차이가 있다. 이 고려 청자와 유사한 자편들은 봉황산에서 발견되었다. 봉황산은 남송 황성유지의 동쪽에 자리한 산으로 북쪽 산자락에 남송 관요로 추정하는 노호동요지가 위치한다.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노호동요지를 수내사 관요로 인정하고 있다.³²

이런 점을 들어 馬亦超는 앞서 언급한 ‘유사 고려 청자’를 고려 청자의 영향으로 남송관요, 즉 수내사관요에서 제작된 ‘高麗窯型 靑瓷’ 즉 ‘倣高麗靑瓷’로 보고 있다.³³ 그래서 남송관요와 고려 청자가 서로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반면 이번 조사에 만났던 항주시문물고고소장이자 남송 관요연구자 唐俊杰은 남송 관요와 고려 청자가 관계가 없다고 본다.

이런 유형의 편들은 이제껏 주목받지 못했던 고려 청자일까? 어디서 제작된 것일까? 고려 청자와 남송 관요 청자는 관계가 없는 것일까?

³² 그러나 아직 노호동 유지가 수내사관요라는 것에는 이견이 있다. 주24) 참조.

³³ 馬亦超, 『南宋杭州修內司官窯研究』(杭州: 中國美術學院出版社, 2006)의 논고를 참조할 것. 그는 많은 청자를 방고려청자로 분류하였다.

한편 고려 청자가 중국 여요 청자와 매우 깊은 영향 관계가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明代 曹昭의 『格古要論』에 따르면, “官窯器는 송대 수내사에서 번조하였는데 토질이 섬세하고 윤이 나며 색채가 청빛에 분홍을 띠었고 질고 열음이 같지 않으며 蟹爪紋, 紫口鐵足이 있으며 색이 좋은 것이 여요와 같은 종류이다.” 라고 하였다.³⁴

위 글에 따르면 여요와 송대 수내사관요는 관련이 있다. 물론 이 송대 수내사관요가 어떤 수내사관요인지, 여요와 같은 종류의 관요기가 어떤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현재 북송 관요의 실체는 알려지지 않았고, 여기서 紫口鐵足은 남송 관요의 특징이다.³⁵ 그런데 사료적 가치가 높은 宋代 葉寔가 쓴 『坦齋筆衡』에는 이런 여요와 송대 관요의 관계에 대한 내용은 담겨 있지 않다. 그러나 고려 청자가 여요 청자와 관련이 있고, 여요청자가 남송 관요 청자와 관련이 있다면 고려 청자와 남송 관요 청자사이에도 어떤 관련이 있지 않을까?

마무리 하자면, 조사 결과 항주·영파 출토 고려 청자는 남송·원과 고려의 도자교류 양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소위 ‘방고려청자’의 실체와 성격에 대한 정밀한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이것은 남송 관요와 고려 청자의 상호 영향과 교류 가능성을 보여준다. 따라서 여요-남송 관요-고려 청자의 관계 여부와 교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중국 도자사에서 다른 요지들과 비교하여, 고려 청자가 갖는 위치와 특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고려 청자의 제작과 운영상의 추이를 이해하는 단초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를 위하여 앞으로 지속적인 중국 출토 고려 청자 자편 조사에 대한 기본 조사와 자료 축적이 요구된다. 많은 同學들의 질정과 제언을 바란다.

투고일 2015. 9. 20 | 심사개시일 2015. 10. 21 | 게재 확정일 2015. 11. 17

³⁴ 官窯器宋修內司燒者土脈細潤，色青帶粉紅，濃淡不一，有蟹爪紋紫口鐵足，色好者與汝窯相類。

³⁵ 현재 북송 관요의 실체는 알려지지 않았다. 북송대 여요를 관요로 보아 여관요라고 보는 견해가 있고, 문헌상 존재하는 수내사관요가 북송에 존재하였을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소위 자구철족은 산화 중 태토에 비교적 철 함량이 높아 생기는 것으로, 유약이 덮인 구연부는 자색으로 유약이 없는 굽은 철색으로 보이는 보이는 것이다. 자구철족 생산품의 연대는 남송중기 전후경이다.

중국 항주·영파 출토 고려 청자 조사 현황

김현정

2015년 4월, 10월 2차례에 걸쳐 미술부에서는 “한국미술 기원조사-동아시아 도자문화 비교 연구”의 일환으로, 절강성 일대 항주·영파 출토 고려 청자편을 조사하였다. 조사한 항주, 영파 출토 고려 청자편은 모두 154점이다. 그 가운데 출토지가 분명한 발굴품이거나 수습 자편 149점을 중심으로 조사내용을 정리하였다.

항주와 영파는 송과 원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와 교역항으로 매우 중요한 곳이었다. 또한 도자기의 집산지와 소비지로도 중요한 지역으로 판단된다. 고려와 중국의 교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지역이었다. 이 지역에서 고려 청자편이 출토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조사 자편 중 66.4%에 달하는 비색청자들이 출토된 곳은 남송 임안성유지이다. 특히 남송 황성유지와 공성인렬황후저택유지에서 출토되었다. 상감되지 않은 조질청자는 임안성유지, 성두항, 봉황산 등에서 출토되었다. 23.4%(35점)의 양질-상감청자는 남송관요, 공성인렬황후저택유지, 봉황산 등 임안성유지에서 서호 주변까지 항주시 여러 곳에서 출토되었다. 시기적으로는 12세기부터 14세기까지 있다.

비색청자의 기형은 매병이 가장 많았고 발, 접시, 주자, 뚜껑, 완, 잔, 합, 향로, 화분, 대접, 도침, 타호 등의 순이다. 매병을 제외하고는, 발과 접시, 완과 잔 등이 많다. 주문양은 용문, 연판문, 모란문, 수파문, 국화문, 운학문, 초화문, 연화문, 앵무문, 동자문, 포류문의 순으로 출토되었다. 특히 청자용문매병은 최상급의 비색청자로서 주목된다. 용문양은 높은 신분층이 사용할 수 있는 문양이다.

조사 결과 몇 가지 문제 제기되었다. 조사 청자편에는 고려청자와 매우 기형과 유색이 비슷하지만, 고려청자편과는 다른 자편들이 섞여 있었다. 그렇다고 일반적으로 알려진 용천요나 송대관요 것은 아니다. 이 자편들은 주로 임안성 내 봉황산에서 집중 발견되었다. 봉황산은 북쪽 산자락에 남송관요로 추정하는 노호동 수내사관요지가 위치한다.

이런 점을 들어 유사 고려 청자를 고려 청자의 영향으로 남송관요에서 제작된 ‘倣高麗青瓷’로 보는 연구자도 있다. 그러나 남송 관요 연구자 중에는 고려 청자와 남송 관요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보는 이도 있다. 이런 편들은 이제껏 발견되지 못했던 고려 청자일까? 어디서 제작된 것일까? 나아가 고려 청자와 남송 관요 청자는 관계는 어떤 것일까? 앞으로 조금 더 심도 있는 자편에 대한 기초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중국도자사에서 다른 요장들과 비교하여 고려시대 청자가 갖는 위치와 특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주제어: 중국 출토 고려청자, 항주, 영파, 남송관요, 방고려청자

Current Status of Goryeo Celadon Excavated from Hangzhou and Ningbo, China

Kim Hyunjung *

During 2015, in April and October, respectively, the Fine Arts Division of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surveyed the shards of Goryeo celadon that were found in the regions of Hangzhou and Ningbo in Zhejiang Province as part of the research project “Study on the Origins of Korean Art – A Comparative Study of the Ceramic Culture of East Asia.” A total of 154 Goryeo celadon shards that had been excavated from Hangzhou and Ningbo were subjects of the two surveys. This study focuses on the 149 pieces that have their findspots identified.

Hangzhou and Ningbo were very important international trade ports and centers of politics, economy, and culture of the Song and Yuan dynasties. The Goryeo Dynasty had also traded actively with China through the two cities as evidenced by the extant guesthouse for Goryeo envoys, and ceramics was one of the trading goods that were gathered, traded and consumed there. Therefore, it is natural that Goryeo celadon shards were found in these areas.

Jade-green (bisaek) Goryeo celadon, accounting for 66.4 percent of the surveyed shards, were excavated from the site of Lin'an city of the Southern Song period, and in particular the imperial palace site and Empress Yang residence sites. Low-quality Goryeo celadon without inlaid decoration was excavated from areas including Lin'an site, Chengdu Port, and Phoenix Mountain (Fenghuangshan). High-quality celadons with inlaid decorations, accounting for 23.4 percent (35 items), ranging from the 12th to 14th centuries, were excavated from various areas in Hangzhou, including the Northern Song official kiln site, surroundings of West Lake (Xi Hu), Empress Yang residence site, Phoenix Mountain (Fenghuangshan), and Shanzi Port.

In terms of shape of the jade-green Goryeo celadon, the maebyeong vase (prunus vase) was greatest in number, followed by bowls, dishes, ewers, lids, small bowls, cups, lidded boxes,

* Associate Curator, National Museum of Korea

incense burners, flower pots, large bowls, pillows, and spittoons. Excluding maebyeong vase, bowls, plates, small bowls, and cups were found the most just like it also had been in Yucheon-ri, Buan, the production site of the Goryeo celadon in Korea. In terms of decorative design, the excavated celadons yielded the most in the order of dragon, lotus petal, peony, wave, cloud and crane, flowering plants, lotus flowers, parrot, children, and waterfowls and willow design. Among the findings, the celadon maebyeong vase inlaid with dragon design is regarded as the most outstanding example of jade-color celadon ware. Dragon design on the vase was a particular type of pattern that could only be used by the upper classes.

Meanwhile, a number of issues were raised from the findings of the surveys. Among the surveyed celadon shards, some of them were similar to Goryeo celadon in terms of shape and glaze color yet different from any of those that had been examined up until now. However, they were also different from the generally known Longquan or Song official kilns celadons. These shards were mostly collected from the Phoenix Mountain (Fenghuangshan) in Lin'an. The Xunze official kilns of Laohu Valley assumed to be the Northern Song Guanyao are located at the northern foot of the Phoenix Mountain.

In this light, some scholars view the similar Goryeo celadon as “copies of Goryeo celadon” produced at the Northern Song official kiln under the influence of Goryeo celadon. However, there are those who view Goryeo celadon as unrelated to the Northern Song official kiln among researchers of this particular kiln. Are these shards from Goryeo celadon that have not been discovered up to this date? Where could they have they been produced? Moreover, what is the relationship between Goryeo celadon and the Northern Song official kiln celadon? In order to comprehend the general situation, a more in-depth study and investigation of the ceramic shards is necessary, along with confirmation of the number of Goryeo celadon. Moreover, it is essential to gain an understanding of not only the relationship between Northern Song and Goryeo but also the position and characteristics of the celadon of the Goryeo Dynasty in comparison with those produced in other kilns within the Chinese ceramic history.

Keywords: Goryeo celadon excavated from China, Hangzhou, Ningbo, Northern Song official kiln, copy of Goryeo celadon